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향후 쌀 수급 안정 추가 대책안
유가공급 등 HACCP 의무화 확대 및 닭·오리 도축장 검사관제 도입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기획 정보

주요 대선 후보자의 농정공약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향후 쌀 수급 안정 추가 대책안

※ 본 자료는 11월 19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2012년산 쌀 생산량, 내년 수급에 문제 없어」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기추진 대책과 시장 동향

- (시장 동향) 국내산과 수입산을 포함한 **신곡 공급 가능량은 4,213천 톤**으로 금년 신곡 수요 4,015천 톤을 충당하고도 **198천 톤이나 여유**가 있는 상황
 - **'13양곡년도 전체 수급**(신·구곡 포함)으로 보면 공급량 5,395천 톤, 수요량 4,575천 톤이어서 **820천 톤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
- (산지 가격 동향) **산지쌀값과 산지 조곡가격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11월 5일 기준 산지쌀값은 173,324원/80kg으로 전년 동기 보다 5% 높은 수준이나, 전월 동기에 비해서는 1.3% 낮음.
 - 산지 조곡가격은 56,161원/40kg으로 전년 동기대비 5.9%, 전월 동기 대비 1.7% 높은 수준임.
- (기추진 대책) 쌀 수급 안정 대책은 지난 10월 15일 예상 생산량 발표 시 부터 추진
 -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량 370천 톤)을 작년과 같이 예정대로 **12월 31일에 종료**하기로 지자체에 기통보(10.15)
 - ※ '11년도에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연말에 종료: (계획) 340천 톤 → (실매입) 261천 톤
 - 정부의 벼 매입자금 지원(1조 2천억 원)에 따른 **RPC 매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무매입 비중 완화**(1.5배→1.0), **의무매입량 충족기한 연장**('12년 12월 말→'13.2월) 조치를 RPC에 통보(10.26)
 - **수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가와 RPC 간 가격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탁매입 의무비중 및 지원자금 확대 조치를 실시시(10.26)
 - ※ 수탁매입 의무매입 비중을 20% → 30%로 확대하고, 지원자금도 2,400억 원 → 3,600억 원으로 증대

- **RPC 등에 정부쌀 인수 희망물량**을 '12년산, '11년산, '09년산 별로 **사전에 조사**(10.25~11.2)하여 **산지 시장이 안정되도록 유도**
※ RPC 인수 희망물량: 581천 톤('12년산 201, '11년산 166, '09년산 214)
- **매입자금 지원과 연계된 RPC 경영평가 기준**을 매입량 위주에서 **매입·판매가격 위주로 변경**하여 RPC 간의 과도한 매입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에 있음.
※ 기존에는 RPC 평가 기준 중 수확기 원료곡 확보량 기준의 비중(35%)이 가장 높았으나, 벼 매입·판매 가격 기준의 비중(50%)이 가장 높게 변경
- (매입 상황) 11월 15일 기준, **쌀 매입량**은 1,447천 톤으로 **전년 동기(1,377천 톤) 대비 70천 톤(5.1%) 증가**
※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11) 106천 톤 → ('12) 159 (53천 톤, 50%↑)
※ RPC·농협 쌀 매입량: ('11) 1,271천 톤 → ('12) 1,288 (17천 톤, 1.4%↑)

□ 양우 추가 수급 안정 대책

- 수확기에 **RPC의 매입 경쟁을 완화하는 대책을 지속 추진**
 - **RPC 경영평가기준 변경안을 조기 확정하여 시행**하고, **RPC 벼 매입 최소기준**(퇴출기준)을 5천 톤에서 **3천 톤으로 완화**하여 벼 매입 경쟁 완화를 적극 뒷받침
- **필요 시 정부쌀을 방출하여 수급안정 도모**
 - 현재 수급안정용 활용가능 물량은 614천 톤(11.15일 기준) 수준으로, 이는 순수하게 밥쌀용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국내산·수입산 가공용쌀(60만 톤, 10.30일 기준)은 제외한 물량임.
※ 614천 톤: '11년산 101천 톤, '12년산 170, '09년산 116, 밥쌀용 수입쌀 227(보유 20, 도입예정 207)
 - '12년산 공공비축미곡 중 RPC 사일로에 보관 중인 산물벼(60천 톤)는 '13년 초에 RPC에 양도할 계획임. 산물벼는 통상 4월에 양도하였으나, '12년산은 시장유통량 확대 차원에서 최대한 조기에 양도하려는 것임.
 - 공공비축 매입량 중 군관수·공공용 200천 톤 이외에 남는 물량도 필요 시 방출할 계획

○ MMA 밥쌀용 수입쌀도 조기에 도입하여 필요 시 시장에 확대 공급할 계획

- '12년분 잔량 90천 톤(중국 62, 미국 20, 태국 3, 호주 5)을 조기에 도입하고 '13년분 밥쌀용 수입쌀(117천 톤)도 당초 '13.11월 도입계획을 '13.4월까지 당겨서 도입할 계획임.
- 12월 말부터 공매 1회당 판매량을 1천 톤 → 1.5천 톤으로 확대하고 필요 시 판매가격 인하도 검토할 계획임.
* 현재 수입쌀 공매는 월·수·금 주 3회 실시하고 있음.
- 최근연산 정부쌀 재고가 감소하고, 국제 곡물가격도 급등하는 등 대내·외 여건상 쌀 수급조정 여력을 확충시킬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주식인 쌀의 생산여력을 확충**하여, **안정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안보도 강화**
 - '13년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규모**를 5천ha로 **축소** 계획
 -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고품질 다수확 품종재배 확대**로 보완
 - **기후변화에 대응**, 도복·병충해·고온·저온·수발아 등에 **저항성을 갖춘 품종을 개발·보급**
※ 내재해성 품종 개발: ('11년까지) 17개 → ('15년) 12개 추가
 -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겨울철 이모작이 가능한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
 -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농지전용 허가
※ 농업진흥지역 면적: ('00) 919천ha(논 768) → ('11) 807천ha(논 710)

주요 농정 이슈_2

유가공업 등 HACCP 의무화 확대 및 닭·오리 도축장 검사관제 도입

※ 본 자료는 11월 20일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발표한 “유가공업 등 HACCP 의무화 확대 및 닭·오리 도축장 검사관제 도입”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추진 경과

- 작년 11월과 12월에 마련한 ‘HACCP 활성화 대책’ 및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HACCP 활성화 대책 수립·발표(‘11. 11. 26)
 -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 대책 수립·발표(‘12. 1. 18)
- 금년 11월 20일, HACCP 활성화 및 도축장의 위생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주요 내용

- (HACCP의 한글 명칭을 변경)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어려워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 ※ 식품 HACCP을 운영하고 있는 식약청 및 복지부와 협의된 사항이며, (‘10. 2월) 이를 내용으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HACCP 적용 확대) 우유 등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집유업 및 일부 축산물가공업에 대해서도 HACCP 적용 의무화
 - ※ 현재는 도축장에 대해서만 HACCP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HACCP의 경우 어묵류, 빙과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에 대하여 '06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음.
 - 집유업: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 도입) 가공장, 판매장 등 개별 영업장에 지정하고 있는 HACCP을 전 유통단계(생산, 가공, 운반, 판매)에 걸쳐 일괄 적용·관리 하도록 안전관리일괄인증제도 도입
- (도축장의 위생수준 강화)
 - 현재 도축장 자체 고용 수의사(책임수의사)가 수행하고 있는 닭·오리 등의 가축에 대한 검사(대통령령)를 반드시 **검사관(수의직 공무원)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 ※ (현행 검사체계) 소·돼지 등 ⇒ 검사관(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
닭·오리 등 ⇒ 책임수의사(수의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업체 소속 직원)
 - 가축을 사육하는 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
 -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 발생 시** 검사관이 작업을 중지 한 후 위해요소를 완벽히 제거하여 도축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검사관의 작업 중지 명령권 신설**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 본 자료는 11월 1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수출물가지수

- 2012년 10월 수출물가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1.9% 하락 (전년 동월대비 5.2% 하락)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3.7% 하락(전년 동월대비 15.2% 하락)

<주요 농림수산물 수출 품목의 등락>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하락	참치 -4.4, 조개 -5.8, 오징어 -2.6
	상승	김 0.3

-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석유화학·고무제품 및 운송장비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1.9% 하락(전년 동월대비 5.1% 하락)

<수출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 월 대 비				전년 동월대비			
		12.7월	8월	9월	10월	12.7월	8월	9월	10월
총 지 수	1000.0	-1.3	0.2	0.3	-1.9	2.2	1.1	-1.9	-5.2
		<0.7>	<1.2>	<0.6>	<-0.4>	<-4.4>	<-3.1>	<-2.0>	<-0.6>
농 립 수 산 품	5.1	-0.5	-0.9	-5.2	-3.7	13.1	-0.5	-11.7	-15.2
공 산 품	994.9	-1.3	0.2	0.3	-1.9	2.1	1.1	-1.9	-5.1
석유화학·고무제품	193.1	0.9	3.5	1.1	-2.1	-1.5	1.1	-1.6	-3.8
1차금속제품	72.8	-2.9	-1.9	1.1	-2.8	-5.3	-9.1	-9.6	-11.2
일반기계·장비제품	66.6	-2.2	-0.5	0.3	-0.8	8.5	6.0	2.6	-1.3
전기장비제품	53.8	-1.6	-1.0	-0.3	-1.4	1.1	0.6	-1.7	-3.3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361.5	-1.5	-1.5	-0.6	-2.2	4.2	2.0	-1.4	-5.8
운송장비제품	144.4	-2.7	-0.9	0.2	-1.8	5.8	3.5	-0.1	-5.1

주: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 수입물가지수

- 2012년 10월 수입물가는 유가 및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3.3% 하락(전년 동월대비 6.4% 하락)
- 원자재: 대두, 옥수수 등 농림수산물과 원유, 철광석 등 광산품이 내려 전월대비 5.1% 하락(전년 동월대비 6.0% 하락)
- ※ 농림수산물: 전월대비 0.8% 하락(전년 동월대비 9.4% 하락)

<주요 농림수산물 수입 품목의 등락>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농림수산물	하락	대두 -4.3, 옥수수 -0.6, 돼지고기 -2.4, 냉동어류 -3.3, 원면 -1.9
	상승	양모 0.3, 천연고무 5.3

- 중간재: 석유 및 화학제품, 1차철강제품 및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2.1% 하락(전년 동월대비 7.2% 하락)

<수입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12.7월	8월	9월	10월	12.7월	8월	9월	10월
총 지 수	1000.0	-0.8	1.7	0.9	-3.3	-1.0	0.3	-2.4	-6.4
		<1.1>	<2.8>	<1.4>	<-1.8>	<-7.8>	<-4.2>	<-2.5>	<-1.9>
원 자 재	278.2	0.7	4.6	0.9	-5.1	-2.2	2.9	-0.2	-6.0
농림수산물	30.2	-0.8	1.7	-1.2	-0.8	-5.3	-5.7	-9.2	-9.4
광 산 품	248.0	0.9	4.9	1.1	-5.5	-1.9	3.9	0.8	-5.7
중 간 재	556.7	-1.7	-0.3	0.9	-2.1	-1.0	-2.3	-4.7	-7.2
석 유 제 품	34.8	5.0	11.7	4.2	-2.7	-8.1	3.5	3.7	4.1
화 학 제 품	87.4	-2.6	0.4	1.1	-1.1	-1.0	-1.7	-4.8	-7.5
비금속광물제품	14.0	-2.6	-1.7	0.7	-4.8	-2.8	-5.0	-6.9	-13.8
1차 철 강 제 품	59.4	-2.9	-2.9	-1.2	-3.3	-3.2	-7.0	-10.6	-13.4
1차비철금속제품	39.3	-2.4	-1.6	6.2	-1.6	-10.8	-11.9	-6.4	-4.1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제품	154.6	-2.7	-2.8	-0.7	-2.2	4.6	0.1	-4.2	-9.3
자 본 재	98.6	-2.0	-0.7	0.4	-1.8	5.0	2.1	-1.0	-5.9
소 비 재	66.5	-3.0	1.3	1.7	-1.5	1.6	1.5	0.2	-3.1

주: < >내는 계약통화기준임.

기획 정보

주요 대선 후보자의 농정공약

※ 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후보의 공약집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 주요 대선 후보자 10대 선거공약

후 보 자	선 거 공 약
박 근 혜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공약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공약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공약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공약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공약 6. 차별 없는 고용시장
	공약 7. 우리 경제의 핵심!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약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공약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공약 10. 안전한 사회
문 재 인	공약 1.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2.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3. 경제민주화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4. 새로운 정치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5.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6.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공약 7.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약 8.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공약 9.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공약 10.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습니다.
안 철 수	공약 1.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약 2.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공약 3. 지역·차별·사회적·업·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약 4. 창의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공약 5.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6. 지역격차와 사회적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7.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에너지 -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8.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공약 9. 정치혁신으로 반칙, 특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10.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북방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 주요 대선 후보자 10대 선거공약 중 농정공약

1) 박근혜 후보

○ 공약 7. 우리 경제의 핵심!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 목표: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켜서 키우겠습니다.

- 농어촌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제고
- 직불제 확충과 유통개혁 등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수산재해대책 개편 등 경영안정망 강화
- IT등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림수산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 체계 확립

2) 문재인 후보

○ 공약 6.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식품안전 및 방역관리 체계 강화**

<식품안전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관단계 및 현지조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활성화 및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
- GMO표시제 및 농축수산물 검역기준 강화

○ 공약 9.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목표: **“삼농(三農)혁신 구상”**을 통해 **“사람중심의 농업, 국민농업시대”** 구현

<농어촌 균형발전>

- 곡물자급률 2030년까지 50% 달성
- 친환경농업육성,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 농업 2020년까지 30% 달성
- 직불제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우선 쌀직불금 인상
- 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령농·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단계적 확충

-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정비
-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제점검하여 피해보전대책 마련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재정비하고, 에너지 절약형 농업 육성
-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가격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생협 등 직거래 유통도 확대

3) 안철수 후보

○ 공약 8.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 목표: **식량 자급능력 향상,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육성**

<식량 생산기반 확충>

- 농지보존제도의 강화, 유희농지 이용도 높이기, 논농업 다양화
- 해외 농업생산기지 구축, 위기 대응 매뉴얼 제도화 추진

<농어가의 소득과 자부심 늘리기>

- 농어가 소득증대에 정부 역량 집중
- 환경친화적 농어업 집중 지원
-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 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현장 농어업인과 관련 분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구를 협치의 원칙에 따라 마련>

4) 공약 비교

구 분	박 근 혜	문 재 인	안 철 수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 직불제 확충 - 직불금 인상 및 대상 품목 확대 •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 '재해보험' 확대	• 직불제 강화 - 직불금 인상, 직불예산 15% 상향 조정 • 농어민 재해보험 국가부담률 상향 조정	• 직불제 개편 및 확대 • 수입보험 제도 도입 - 가격변동과 물량변동 위험 통합
농업경쟁력 및 구조개선	• 양수축산물 유통구조(생산자·생산자단체·소매점 3단계) 단순화 • 농업분야 R&D 투자 강화	• 도농상생 직거래 유통망 확충 • FTA 무역 이익 공유제 검토	• 생협, 아파트협동조합 등 직거래 유통조직 육성 • FTA 피해보전직불금 비율 향상
식품안전 및 식량안보	• 안전식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식량자급률 50% 달성(20년) • 국가식품계획 수립 농지총량 관리제도 도입	• 국가식품계획 수립 및 제도화 • 곡물자급률 제고 위한 보전 농지 총량 규제
농정체제	•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는 농정 체계 확립	• 대통령 직속 국민농민발전 특위 설치	•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위 설치

[별첨자료 1.] 「안국농업경영인증양언업의 대선 후보 농정 토론외」 농업정책 발표내용 요약(2012.11.19)

후 보 자	공 약
박 근 혜 ⇒	<농민의 소득 향상, 농촌의 복지 확대, 농업의 경쟁력 확보> • 직불금 확대로 농가소득안정에 기여(→직불금 인상 및 대상 품목 확대) • 농자재가격 안정(→농자재유통센터 건립,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생산자·생산자 단체·소매점 3단계 단순화) • 첨단과학기술 접목하여 농업경쟁력 향상(→농업분야 R&D 투자 강화)
문 재 인 ⇒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미래의 안보산업> • 직불제 강화해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직불금 15% 상향 조정) •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농민 보호(→농어민 재해보험 국가부담률 상향 조정) • 대형유통매장의 독과점 유통구조 개선(→도농상생 직거래 유통망 확충) • 자유무역협정(FTA) 무역 이익 공유제 검토, 발착물 영세농 보호 • 친환경 농업 비율 30% 수준으로 확대·공공기관 친환경급식 확대 • 고령·영세농 사회안전망 강화, 중소 가족농 영농자금과 학비대출 • 미래생명농업고 설치해 농업인력 육성(→특별 채용제도 도입) • 식량자급률 향상 위해 중장기 목표 설정, 종합적인 이행 강화 • 깨끗하고 정감 있는 농어촌 환경 조성 • 분권형 협치농정 실현(→대통령 직속 국민농민발전특위 설치)
안 철 수 ⇒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과 도시의 삶의 질 균형> • 농산물 가격은 농가의 생존권과 직결(→원산지 표시 강화) • 농어촌 기초생활 보장 삶의 질 향상(→농어촌 1시·군 1의료협동조합 육성) • 협동 기초로 한 혁신(→생협, 아파트협동조합 등 직거래 유통조직 육성) • 농가소득 보장, 경영 안정화(→급식 공공제도 도입, 직불제 확대) •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위 설치(→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및 확대) • 경제민주화는 농업에서부터 시작(→농업·비농업 간 불균형 개선) • 농업기반 확보, 식량자급률 향상(→국가식품계획 수립)

[별첨자료 2.]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 공약집(농업정책)

□ 문재인 후보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1항은 농업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 '식량주권' 확립 위한 식량자급율 목표제 도입

- 식량자급율 2030년까지 50% 달성
- 국가식품계획 수립, 농지총량관리제도 도입

2. '안전한 먹거리' 확보

- 친환경농업 육성,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 친환경농업을 2020년까지 30% 수준까지 향상

3. 고령농, 영세농 등 농어민 '사회안전망' 확충

- 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농어촌주민 차별 철폐

4.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 재정비

- 에너지 절약형 농업경영체 육성
- 농촌생활용 에너지수용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5. 농업인 유통기능 강화를 통한 가격결정권 주도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자조금제도 강화
- 생협 등 직거래 유통 확대

□ 안철수 후보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업·농어촌

1. 3대 목표

-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 농어촌 사회의 활력 증진과 기초복지 확충
-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2. 10개 정책약속

-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먹거리 종합관리 체제 구축
- 직접지불제도 확충을 통한 농어가 소득 보장과 경영 안정화
- 환경보전형 생산시스템으로 전환
- 협동을 기초로 한 푸드시스템 혁신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과 R&D 혁신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 증진
- 농어촌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 생활권이 재생되고 경관·환경이 보전되는 농어촌 공간 재창조
- 거버넌스·지역 중심의 농정추진체계 구축
- 상생의 국제 농어업 협력체계 구축

※ 본 자료는 11월 19일~23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MMA 중국쌀 가격 높아 안 톨도 반입 못해

- 올해 중국에서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쌀(MMA*) 11만6천 톤(나라별 키토량)...**가 **가격이 높아** 지난 2월, 6월, 11월에 입찰을 실시했지만 모두 **유찰**. 중국이 2009년부터 **중국 쌀값이 생산비 상승 등으로 비싸져서 문제**. 올해 **중국처럼 유찰이 계속되면 MMA 쌀 관련 합의문에 따라 총량키토로 바뀌어 중국에 의무배정된 양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도 된다***는 뜻. 우리나라는 WTO 재협상 결과에 따라 2005년~2014년까지 MMA쌀 수입. 2015년부터는 쌀에 관세를 붙여 수입할 예정. MMA쌀 수입물량은 (2005년) 22만5,575톤('88~'90년 소비량의 4.40%) → (2014년) 40만8,700톤(7.96%)까지 매년 2만347톤씩 균등하게 증량. 수입쌀은 가공용과 밥쌀용으로 구분, 밥쌀용은 2005년 MMA 물량의 10%를 시작으로 매년 4%씩 확대, 2010년부터는 밥쌀용 쌀 물량이 확대돼 전체 수입물량의 30%로 배정. MMA쌀은 크게 '나라별 키토'와 '총량키토'로 나뉘었는데, 나라별 키토는 2001년~20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해, 물량과 곡종을 지정해 도입. 현재 중국과 미국, 태국, 호주가 나라별 키토물량을 배정받고 있으나, **호주는 2006년부터 자국에 배정된 키토량을 포기**. 이에 따라 **호주 물량만큼 총량키토로 전환해, 중국, 미국,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등에서 들여오고 있는 상황**.

※ Minimum Market Access: 수입금지됐던 상품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한 것. 쌀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하면서 국내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수입해야 한다는 개방정도의 하향 폭을 말함. '91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을 위해 제시된 단켈 초안에서 최초로 사용된 말

※ 나라별 키토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는데 당해연도 물량은 당해에 소진되고 이월이 불가하며, 비정상적인 고가 입찰 시 유찰시킬 수 있고 3회 유찰 시 당해 물량은 총량키토로 전환

※ 총량키토는 도입가격, 국내수요 등을 감안해 곡종별로 배정. 올해 MMA쌀 수입계획량은 총 36만8,006톤(밥쌀용 11만401톤, 가공용 25만7,605톤). 세분해 보면 총량키토 16만2,778톤, 나라별 키토 중국 11만6,159톤, 미국 5만76톤, 태국 2만9,963톤, 호주 9,030톤 등 총 20만5,228톤

자료 : 한국농정신문(2012.11.19)

□ 쌀 소득보전 법률 개정안 통과 '작소'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직불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를 통과했지만 **쌀목표가격 인상 및 산정방식 변경, 변동직불금 보전비율 상향조정 등을 포함한 법안**은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농식품위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이에 따라 ▲농식품위원...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몇 년째 쌀목표가격이 고정돼 있는데 쌀농가 소득이 점점 감소하는 만큼 목표가격을 올려야 한다")인 반면, ▲정부...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쌀목표가격을 못박는 것은 힘들다"며 "목표가격을 21만 원으로 할 경우 수조 원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적인 압박도 고려해야 한다")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 될 조짐.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 11.15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관련 법안을 추후 논의할 예정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11.22)

□ 안·중·일, FTA 협상개시 선언

-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 에다노 유키오 일본 경제산업대신, 11.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2003년 민간공동연구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한국·중국·일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3국은 이어 차관보급의 FTA 수석대표회의를 열고 1차 협상 일정을 논의. **1차 협상은 내년 초에 개최될 예정**. 3국은 **상품·서비스·투자·기타 등 모든 분야 협상을 동시에 열때, 관세철폐를 논의하는 상품분야는 한·중, 한·일, 중·일 양자 협상 위주로 진행**. 일본산 농식품 관세가 철폐되면 사과·배·녹차·낙농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들 품목의 가격 경쟁력은 한국산이 다소 앞서지만, 계절적·선물용 수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일각에선 FTA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 일본 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불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 **3국의 경제규모나 소득 수준, 기술격차가 워낙 큰 데다 가장 민감한 농축산물의 경우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워낙 앞서기 때문에 협상은 더디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중국...자동차나 전기제품 관세 인하에 소극적, ▲일본...농업분야 개방을 꺼리는 분위기, ▲한국...자동차·전기제품·농업 모두 중간 위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를 둘러싼 중·일·한·일간의 외교분쟁 역시 FTA 협상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내재

자료 : 농민신문(2012.11.21)

□ 내년부터 정육점에서 돈가스·햄 등 식육가공품 판매 가능

- 정부, 11.16일 물가관계장관 회의, 식육판매업소의 영업규제 정비를 통한 식육가공품 판매 확대와 식육가공산업 육성 지원하는 '식육가공품 제조·유통 활성화 방안' 마련. ▲최근 돼지 사육마릿수가 구제역 발생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수급문제 제기, ▲소비성향이 삼겹살·목살에 편중되면서 이들 부위는 공급 부족으로 수입하는데 반해 앞·뒷다리 등 저지방부위는 남아도는 상황으로 식육가공품의 유통 확대를 통해 해소하고자 함. 내년부터는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도 별도의 신고 없이 돈가스 등 식육가공품 판매가 가능해 질 전망. 농식품부, '13.2월 시행을 목표로 '식육판매업'을 '식육·가공품판매업'으로 변경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만으로 식육가공품까지 제조·판매토록 할 계획. 특히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이들 식육·가공품판매업이 취급하는 제품도 현행 햄, 소시지 등 품목별로 육함량 50%, 70%, 85%이상 함유하는 제품에서 식육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으로 확대키로 함. 다만 식육·가공품판매업소가 다양한 제품을 취급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생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규모 및 시설기준을 확보한 식육판매업자만 식육가공품의 취급업소로 인정, 식중독 등 식품안전의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부처 간 공동조사 시행. 이와 관련 정부는 식육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시설 자금 및 실습형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식육가공품 제조기술 등 교육을 실시해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2.11.20)

□ 농촌마을 주민 공동생산 '탄력'

- 농촌진흥청·한국협동조합연구소·지역농업네트워크, 11.12일 공동으로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업생산 및 관련 사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경영방법개선 방안을 마련해 농촌마을 주민 공동생산 '탄력'. 협동조합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집락영농법인 9개소, 국내 마을경영체 19개소의 조사를 포함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을단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조직진단표를 개발, 2013년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경영체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든다는 계획. 현재 고령농의 새로운 영농·경영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과 농업소득의 감소로 개인의 영농성과도 한계. 이에 따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소득사업을 모색하며 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이번 연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김기태 소장(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일본은 집락영농이라는 형태로 마을단위의 농업경영체가 활성화 됨.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불리지역의 마을부터 자발적으로 집락영농 발생, ▲집단경영을 통해 농지 공동경작과 농기계 공동 이용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공동경영을 통한 수익개선과 가치향상에 기여. 10년 후 우리나라에서도 마을공동생산조직이 일반화될 것이며, 경제적 자립시스템을 갖춘 농업 생산조직이 도입되고 확산된다면 농업 생산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주민의 편익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11.19)

□ 무상급식비 50% 국가 지원

- 우원식 의원, 무상급식비 국가지원비율을 50%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교급식 대상을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원 근거를 마련, ▲재원은 식품비의 100분의 50 국가 부담, 100분의 50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해 부담, ▲학교급식 지원정책 수립,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평가 등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위한 체계적인 총괄 지원기구인 급식지원총괄센터를 설치·운영, ▲친환경우리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2.11.21)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 본 자료는 11월 1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총괄

○ **금년 쌀 생산량은 4,006천 톤**으로 **전년보다 218천 톤(-5.2%) 감소**

※ 현백률 90.4% 적용 시: ('11) 4,110천 톤 → ('12) 3,898천 톤

- 단위면적(10a)당 **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4.6% 감소**하고, **벼 재배 면적도 전년에 비해 0.5% 감소**하여 전체 쌀 생산량은 5.2% 감소

○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은 473kg**으로 **전년의 496kg보다 4.6% 감소**

※ 현백률 90.4% 적용 시: ('11) 482kg → ('12) 460kg

<쌀 생산량 및 재배면적>

구 분	'07	'08	'09	'10	'11	'12	전년비(%)
총 생산량(천 톤)	4,408	4,843	4,916	4,295	4,224	4,006	-5.2
현백률 90.4% 기준	4,289	4,712	4,787	4,180	4,110	3,898	
10a당생산량(kg)	466	520	534	483	496	473	-4.6
현백률 90.4% 기준	453	506	520	470	482	460	
재배면적(천ha)	950	936	924	892	854	849	-0.5

주: 10a당 생산량은 논벼 기준 생산량임.

□ 지역별

○ **도별 쌀 생산량은 충남(784천 톤) > 전남(700천 톤) > 전북(622천 톤)**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은 충남이 512kg**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북 506kg, 충북 492kg 순으로 나타남.

※ 시·도별 쌀 생산량 통계는 부록 참고

[부록] 시·도별 쌀 생산량 통계표

1) 현백률 92.9%(9분도) 기준

구분	재 배 면 적			생 산 량		
	'11	'12	증감률(%)	'11	'12	증감률(%)
전국	853,823	849,172	-0.5	4,224,019	4,006,185	-5.2
서울	268	267	-0.4	1,185	1,238	4.5
부산	3,346	3,309	-1.1	15,851	16,191	2.1
대구	2,894	2,981	3.0	14,078	14,648	4.0
인천	12,294	12,007	-2.3	50,895	58,374	14.7
광주	5,999	5,603	-6.6	27,900	26,856	-3.7
대전	1,503	1,526	1.5	7,431	7,452	0.3
울산	6,217	5,841	-6.0	29,304	27,417	-6.4
경기	91,727	90,824	-1.0	405,422	420,844	3.8
강원	35,955	34,806	-3.2	171,012	163,739	-4.3
충북	44,504	43,254	-2.8	219,100	212,748	-2.9
충남	152,947	153,091	0.1	805,139	783,501	-2.7
전북	130,696	130,351	-0.3	684,219	622,181	-9.1
전남	174,930	173,283	-0.9	829,040	700,405	-15.5
경북	110,550	111,505	0.9	570,176	563,960	-1.1
경남	79,563	80,002	0.6	392,123	385,615	-1.7
제주	430	522	21.4	1,145	1,017	-11.2

2) 현백률 90.4%(12분도) 기준

구분	재 배 면 적			10a당 생산량			생 산 량		
	'11	'12	증감률 (%)	'11	'12	증감률 (%)	'11	'12	증감률 (%)
전국	850,798	846,870	-0.5	496	473	-4.6	4,216,607	4,002,154	-5.1
서울	268	267	-0.4	442	464	5.0	1,185	1,238	4.5
부산	3,346	3,309	-1.1	474	489	3.2	15,851	16,191	2.1
대구	2,890	2,976	3.0	487	492	1.0	14,068	14,636	4.0
인천	12,294	12,007	-2.3	414	486	17.4	50,895	58,374	14.7
광주	5,952	5,576	-6.3	467	481	3.0	27,806	26,811	-3.6
대전	1,503	1,526	1.5	494	488	-1.2	7,431	7,452	0.3
울산	6,213	5,838	-6.0	472	470	-0.4	29,295	27,413	-6.4
경기	91,689	90,753	-1.0	442	464	5.0	405,328	420,700	3.8
강원	35,914	34,772	-3.2	476	471	-1.1	170,916	163,675	-4.2
충북	44,480	43,245	-2.8	492	492	0.0	219,048	212,734	-2.9
충남	152,861	153,056	0.1	527	512	-2.8	804,921	783,426	-2.7
전북	130,549	130,260	-0.2	524	478	-8.8	683,856	621,996	-9.0
전남	172,842	171,872	-0.6	477	406	-14.9	823,955	698,093	-15.3
경북	110,458	111,459	0.9	516	506	-1.9	569,948	563,846	-1.1
경남	79,522	79,940	0.5	493	482	-2.2	392,033	385,522	-1.7
제주	17	14	-17.6	415	337	-18.8	71	47	-33.8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